

# 광주·전남 작가 중앙 진출 기회 넓어진다

광주시립미술관·전남문화재단

서울에 공동갤러리 추진

2016년 하반기 개관

갤러리 GMA 7년 운영

시립미술관 노하우 활용

장소·운영 방법 등 논의



광주시립미술관이 서울 시간동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GMA의 외부(왼쪽)·내부 모습.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광주·전남 지역 작가들의 서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갤러리가 내년 새롭게 문을 연다.

전남문화재단은 최근 내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서울에 '갤러리 GMA (Gwangju Museum of Art)'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서울에 새로운 갤러리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측은 서울 갤러리가 지역 작가들의 수도권 진출과 창작 활동 지원, 출향 작가 작품 홍보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이 공동 운영하는 갤러리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갤러리 GMA'를 보유하고 지역 작가들을 소개해온 시립미술관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논의 과정을 거쳐 장소, 인력, 예산, 운영 전반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립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의 중앙 화단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 2008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230㎡(약 70평) 규모의 '갤러리 LIGHT'를 개관, 지방 국립미술관 최초로 서울에 자체 갤러리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9월부터는 한국 화랑계의 중심인 종로구 시간동으로 장소를 옮겨 '갤러리 GMA'(240㎡ 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GMA는 15일 현재 65여회의 전시를 개최했다. 지역 작가들의 대관료는 일주일에 100만원(타 지역 작가 250만원)으로, 서울 지역 갤러리(하루 50만~150만원)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이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광주 출신 작가 대관료를 일주일 50만원으로 대폭 감액했고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전남 출신 작가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일단 새로운 갤러리 개관 시점은 '갤러리 GMA'의 4년 임대 계약이 끝나는 2016년 하반기로 잡혀 있다. 갤러리는 현재 GMA보다 대폭 확장된 공간(330㎡ 이상)을 확보할 계획으로 최근 양쪽 사업 책임자가 함께 서울을 방문, 갤러리 후보지를 둘러봤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평소 장소를 절반으로 나눠 광주·전남 작가들이 개별 전시를 하고 기획전 등에서는 통합 전시를 꾸미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전남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술 경매 도입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갤러리 GMA'는 지금까지 전시를 통해 작품을 판매했고 경매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 반면 전남문화재단은 한달에 한번 정도 경매를 진행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어 조율 과정과 미술계의 여론 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갤러리 GMA'는 매년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신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전남문화재단에서는 올해 확정되는 내년 전남도 예산안에 갤러리 운영 비용을 포함시켜야 할 상황이라는 점에서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양 기관이 서울에 갤러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확정된 사안으로 장소,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논의의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갤러리 GMA'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이매리 작가는 "새롭게 마련되는 갤러리는 평면 뿐 아니라 설치·영상 등의 작품 전시도 가능한 넓은 장소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희의 문화카데

대응보전에 다다르자 등근 LED 조명을 머리에 등진 본존불이 눈에 들어온다. 미디어 아티스트 김기라·임선희씨의 작품 '광배(光背)다. 환한 '조명발'을 받아서 인지 부처님의 얼굴이 유난히 자비로우 보인다. 말 그대로 부처님의 후광(後光)이다. 법당에 들어선 불자들은 LED 조명대를 두른 부처님의 '빛선' 모습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두 손을 모으고 불공을 드린다.

지난 주말 지인들과 함께 찾은 강진 백련사는 예전에 보았던 그 산사가 아니었다. 명부전, 대웅전, 육화당, 만경루 등 경내 곳곳에는 화려한 색감과 조형미가 인상적인 풍경

'풍류남도 만화방장'(7월30일~9월30일) 덕분이다. 참여작가들이 전시에 앞서 직접 강진·해남의 지형과 사찰을 둘러보고 역사와 사 람들에 대해 탐구한 때문인지 작품마다 남도의 자연과 문화유산들이 살아 숨쉰다. 전통미술의 보고인 남도사찰들을 현대미술가들의 창작거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는 대중에게는 화이트 큐브(전시장)가 아닌 친근한 현장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실제로 행촌문화재단은 이들 사찰뿐만 아니라 행촌미술관(대표 이승미)이 들어서 있는 해남종합병

## 찾아가는 행촌미술관

화, 정물화, 조각, 설치 작품들이 어우러져 미술관을 방불케 했다.

백련사를 빠져 나와 도착한 해남 대흥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풍류남도 만화방장(萬畵芳場)'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린 사찰 입구의 성보 박물관에는 대륜산, 달마산, 미항사, 백련사, 천불, 갈로 탕 등을 소재로 작업한 작가 20여 명의 작품이 '흐드러지게' 펼쳐져 있었다. 특히 국보인 대흥사의 천 불상을 모티브로 한 김은숙 작가의 디지털 프린트 '천불 +1', 대웅전의 감로탕에서 영감을 받아 평범한 해 남 윤씨 부부의 삶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하성희의 채색화 '감로탕', 박물관 주변에 설치된 조각가 전영일의 종이탑 앞에는 방문객들이 모여 들었다.

최근 남도의 대표적인 사찰인 강진 백련사, 해남 대흥사, 미항사를 들른 방문객들은 마음과 눈이 즐거워지는 때 아닌 '호사'를 누리다. 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국)이 남도의 사찰들을 주무대로 기획한

원, 병원 구내식당, 임하도, 일지암,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등 8곳에 400여 점의 미술품을 설치했다. 무엇보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가 적은 농촌 주민들의 일상으로 직접 '찾아가' 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주는 의미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적막감이 감돌았던 사찰 경내내 예술적 기운을 만끽하는 불자들이 북적거렸고 삭막한 병원에는 복도와 식당에 전시된 정물화와 풍경화를 보며 위로를 받는 환자들 눈이 많이 떠졌다.

광주로 돌아오는 길, '전시장= 화이트 큐브'라는 틀을 과감히 깬 행촌문화재단의 '과격'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관람객이 오지 않는 다며 불평을 하는 미술관이나 공연단체들이 오버랩됐기 때문이다. 이제 '가만히 앉아서' 관람객을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 예술이라고 예 외는 아니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 1318의 창, 나를 외치다... 청소년 영화축제

18일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개막, 20일까지 본선 진출 작품 26편 상영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영화축제가 시작된다. '1318의 창, 나를 외치다'를 주제로 한 '제17회 한국청소년영화제 (KYFF-Korea Youth Film Festival)'가 오는 18~20일 유스퀘어 야외무대(개막식) 등에서 열린다.

18일 오후 7시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청소년 밴드 '쓰리고', 'STEP과 더드림어즈', 소프라노 김혜민, 댄스팀 '빅사이즈 크루' 등의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개막작은 지난해 대상 수상작인 최아영(경기예술고) 양의 '복수의 낙인'(사진)이며 19~20일에는 57타운 콘서트홀 특별상영관(광주 황금동)에서 본선 진출 작품 26편이 상영된다.

수상작은 전문심사위원 점수 70%와 전국 청소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31명의 청소년 심사단 점수 30%를 합쳐 수상작을 정한다. 전문심사위원으로는 김유성 영화 감독, 한길로 영화제작 프로듀서, 한재영 영화배우 등 광



주 출신 젊은 영화인들이 맡았다. 그밖에 청소년 심사단의 2박3일 활동을 메이킹 필름으로 제작해 폐막식 때 선보이며 마지막 날에는 조이댄스 축하공연 및 미디어아티스트 이조흠의 디제이, 미디어 작품상영과 강연, 시상식이 열린다. 문의 062-368-80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예술 검열 중단하라"

작가회의, 예술지원사업 공개 촉구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시영)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문예정책이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던 독재정권 시절로 퇴행했다"며 "불투명, 불공정, 무원칙한 행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작가회의는 14일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적 검열을 중단하고 예술지원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예술지원사업을 파행에 이르게 한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감사 등에 따르면 문예위는 문학창작기금 희곡 부문 지원 사업 심의에서 1위로 통과한 이윤택 씨의 희곡 '꽃을 바치는 시간'을 탈락시켰고,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102편의 지원 대상은 70편으로 줄여 최종 발표했다.

또한 작가회의는 "문예위가 박근혜 연출가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심의위원들을 압박했으며, 압박이 통하지 않자 직접 당사자를 방문하여 지원포기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 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대구시지부 친선 교류 사업

현장형 성평등 정책 발굴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시지부(회장 박영희)는 11일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과 함께 '현장형 성평등 정책 사업 발굴' 일환으로 달빛동맹(광주-대구) 친선 교류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광주를 방문하는 대구시 지부 회원들은 여성재단 북카페와 전시관 등을 둘러본 후 오찬을 함께하고 김치 담기 체험, 축산 농가 견학 등의 행사를 갖는다. 또 최근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도 진행한다.

한편 광주시지부 회원들은 지난 11일 대구를 방문해 근대문화골목, 향촌문화관, 김광석 거리 등을 둘러보고 운송원 대구 중구청장의 강연도 들었다. 문의 062-670-05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나는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 하자없이 20년은 너뿐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벽면시공, 창문시공, 창문기둥, 시공후벽면, 벽면시공후벽면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량하고 저렴한 가격에 배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